

# 全南地域과 金炳淵文學의 關係

양동식\*

## <차례>

- I. 서론
- II. 난고문학관의 虛實
- III. 放浪의 시작
- IV. 김병연 시에 나타난 地方 人心
- V. 전남에서의 位相
- VI. 맺는말

## <부록>

- 1) 지명이 확인된 시
- 2) 지명이 불명한 시
- 3) 전남지역을 나타낸 시

김병연은 35년간 샷갓을 쓰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시를 지었다. 역적의 손자라는 자괴감으로 고향을 등졌던 구걸행각은 수모와 냉대였다. 그런 까닭에 그의 시에는 해학과 풍자 그리고 조롱으로 분풀이를 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전라도에서의 작품 성향은 대체로 매우 평온한 심사가 표출되어 있다.

김병연은 전남 화순 동북에 자주 드나들었고 결국 이곳에서 임종했으며, 지금도 초분지가 보존되어 있다. 그가 기숙했던 창원정씨의 가옥과 중요한 창작무대의 한 부분이었던 화순 동북 일대의 풍광은 김병연 문학의 유형적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가치가 충분이 있

\* 순천대학교

다고 생각한다.

KCS I

## I. 서론

김병연(金炳淵)은 김삿갓의 본명이다. 이응수가 그의 한시(漢詩)를 최초로 수집 정리하여 『김립시집(金笠詩集)』<sup>2)</sup>을 내었다. 초판에는 걸식(乞食), 인물(人物), 영물(詠物), 동물(動物), 강산누대(江山樓臺), 잡감(雜感) 등 6종으로 분류한 한시 150여 편이 실려 있다. 그 중에 걸식, 인물, 산천누대 등을 읊은 시에는 김병연이 유량한 것으로 생각되는 지명이 명시되어 있다. 김립(金笠)으로도 불리우는 그는 방랑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방랑은 팔자 좋은 유람이 아니라 폐족의 신분을 속이고 정처없이 떠돌았던 걸식(乞食)행각이다. 무려 35여 년에 걸친 그의 떠돌이 생활, 날짜로 환산하면 일만일(一萬日)이 넘고, 얻어먹은 끼니는 4만회에 육박한다. 그러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꼴을 풍자와 해학으로 시화(詩化)한 것이 천 편이 넘는다고 한다.

그 시편 가운데에 명시된 어떤 지방에서는 천대와 멸시를 당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환대와 존경을 받았다는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김병연이 모욕을 당하고 해학과 풍자로 조롱한 지방과 그에게 안식(安息)을 주었던 지방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나눔이 오늘날 일부에서 들먹이는 지방색(地方色)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을 명시한다. 그에게는 한반도 모두가 그의 시작(詩作) 무대였다. 그의 시작 무대 가운데 어느 지방의 작품이 제일 많은가를 알아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시인 김병연의 태생지와 그의 묘소를 알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 중요성을 이창식은 이렇게 말한다.

문화유산 중 김삿갓 유적은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김삿갓의 유형문화재인 묘소, 주거터 등은 주제테마 관광의 명소가 되었고, 그의 시와 설화 등은 무형문화재로 문학의 고향처럼 인식되었다. 김삿갓 축제는 이러한 유·무형의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부가 가치로 떠오르는 행사다.<sup>3)</sup>

1) 金炳淵(1807~1863)은 조선 시대의 방랑 시인으로 호는 난고(蘭阜)이다.

2) 이응수, 『金笠詩集』(초판), 학예사, 1939.

3) 이창식, 「김삿갓 시의 구비 문학적 성격」, 세명대, 2001, 7쪽.

필자는 ‘김삿갓 유적은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현장’이라는 주장을 존중하면서 김병연이 한시를 지었던 창작무대創作舞臺의 확인도 중요하며 그것도 또한 역사 속에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김삿갓의 유형문화재는 묘소나 영월의 ‘난고문학관’만이 아니다. 그의 창작무대의 하나이며 유난히 장기간 기숙했던 전남 화순의 동북 창원정씨의 가옥, 그리고 동북 일대의 풍광도 문화유산의 하나라는 생각이 필자의 주장이다. 지금도 살아 있는 문화유적지 동북에 난고 김병연의 기념관을 세워 명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 행정기관인 전라남도 도청에서나 주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주장을 위하여 필자는 이응수<sup>4)</sup>가 역편한 『김립시집』 초판(1939)과 증보판(1941) 그리고 『풍자시인 김삿갓』으로 책명을 바꾼 최종판을 검토하여 김병연의 시작무대詩作舞臺를 추적해 보고 그 지방에 대한 시인의 시각視覺을 고찰하겠다. 이러한 고찰을 정리하여 이 지역 전남이 김병연 문학예술의 중요한 산실의 하나라는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 II. 난고문학관의 虛實

김병연의 한시 모음집 『김립시집』 초판에 쓴 이응수의 자서自序에는 『大東奇聞』, 『綠此集』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들은 김병연에 대한 출생, 행적을 간략히 적고 있다. 또한 이응수는 『김립시집』을 엮기 위한 작품 수집의 과정도 약술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남선南鮮 등지는 가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응수의 수집과정을 보여주는 단면의 하나다.

안변군(安邊郡) 위익면(衛益面) 구 고산리(高山里)에 있는 저자(이응수·필자 주)의 우인 강호길(姜鎬吉)의 조부 강형범(姜炯範)씨(丁巳生)가 아직 약관 시절에

4) 이응수(1909~1964)는 함경남도 고원군 출생으로 경성제대 졸업하고 8·15 이후 북한에서 문학사 집필하고 『金笠詩集』을 역편하였으며, 그밖의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김립(金笠)을 직접 면접하여 씨의 사택 후편 논에서 가을 추수를 하다가 시(詩)를 읊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의 시는 <노고봉음老姑峰吟>이다.<sup>5)</sup>

강형범姜炯範 씨가 丁巳生이면 1797년 또는 1857년에 출생했을 것이다. 김병연을 만난 시기가 약관弱冠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20년을 더한 1817년이나 1877년에 해당한다. 만일 1817년이면 김병연의 나이 겨우 11세, 1877년이면 이미 사망한 뒤가 된다. 강형범의 출생 간지干支 기술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연대는 불확실하지만 두 사람이 상면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 이 작품은 <안변노고봉과차음 安邊老姑峰過次吟>으로 다시 등장한다. 그러므로 김병연이 안변 등지에 유랑하며 시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도인南道人 중에 자작自作을 김립작으로 출세시키려는 야시인野詩人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증보판(1941)>에 실린 <난고평생시 蘭皋平生詩>의 ‘남주중고과객다 南州從古過客多’와 상통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남도南道란 충청·경상·전라를 통틀어 말하며 남로南路·남중南中이라고 하는데 남주南州 역시 그러한 뜻으로 쓰였다고 추측된다. 필자가 ‘남주南州’를 ‘호남湖南’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따르기 때문이다.

호남 및 호남문화라는 말이 일상 통용되고 있어 그 지역적 범위나 개념이 명확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에서조차 상이한 설명이 발견되고 있다. …(중략)… 혹자는 호남(湖南)은 호수의 남쪽에서 유래된 말로서 여기서 호수란 구체적으로 금강(鎭江)을 지시하기 때문에, 호남이란 곧 금강 이남의 지역인 충청남도 일부와 전남·북 일원을 일컫는 지리적 명칭이라는 것이다(나경수, 1993). 이에 대하여 발표자는 ‘호남’을 전라남·북도라는 행정 단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sup>6)</sup>

5) 이응수, 『金笠詩集』(증보판), 한성도서, 1941, 4쪽.

6) 최협, 「호남문화론의 모색」, 『호남사회의 이해』, 풀빛, 1996, 14쪽.

이러한 견해와 함께 이서구李書九(1754~1825) 원작으로 알려진 신재효 申在孝本의 호남가湖南歌에 거명되는 50여 고율이 보여주듯 ‘호남을 전라남·북도라는 행정단위를 지칭하는 개념’은 그 역사가 깊다. 과객過客 김병연은 말년에 호남 지방인 전남 화순의 동복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또한 그가 임종하여 최초로 묻힌 곳 역시 동복이라고 문제선은 주장한다.

김립(金笠)선생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몇 차례나 동복지방에 왔을까? 확실한 문헌이나 고증은 없으나 그의 시를 중심으로 분석해 풀어보고자 한다. 김삿갓은 동복에서 4편의 주옥같은 시를 남겼다.<sup>7)</sup>

이용수는 ‘시의 수집의 지역적 범위는 남선·북선·서선을 통틀어 포함 되어 있는데 기중 내 발이 많이 간 곳은 함흥·홍원·원산·안변·경성 등지이고 기타 남선·강원도 지방에 직접 가지 못한 것은 나의 유감이다’ 라고 했다. 만일 남선南鮮 즉 남도 가운데 호남湖南 지방까지 이용수의 발길이 미쳤더라면 훨씬 더 많은 작품이 『김립시집』에 실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김병연의 행보는 무작정, 무정처였을 것이므로 김병연이 사망한 수 십년 뒤에 그의 족적을 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용수가 제시한 족적의 일단을 다시 보겠다.

선생은 폐족의 자손으로서 세상의 학대와 멸시가 막대함을 참지 못하여 20세 경에 집을 나왔으니 그때 선생께서는 장자 학균(喬均)씨를 낳든 때였다. 선생은 3년간을 방랑하시다가 24세에 다시 한 번 들어와 차자 익균(翼均)씨를 낳고 나가신 후는 57세를 일기로 전라도 동복(同福)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귀가 하지 않았다. …(중략)… 그 사이 선생의 모친이 친가에 가 계신 결성(結成) 땅에 선생은 찾아가서 근방의 사람들에게 모친의 건재여부만 묻고는 찾아보지 않고 떠난 것이 여러차례라 한다. 선생의 그 심중을 살피면 눈물겨움이 있다. 이리하여 전라도 동복(同福)에서 돌아가신 것을 익균씨가 강원도 영월군 의풍면 태백산록에 모셨다.<sup>8)</sup>

7) 문제선, 「김삿갓 초분지(初墳地)에 대한 고찰(考察)」, 화순군, 1999, 76쪽.

8) 이용수, 전계서(중보판), 8쪽.

차남 익균의 출생은 1830년, 김병연의 나이 24세 때로 추정한다. 19세기에 행방을 모르는 아버지를 추적하려면 아마도 호패號牌를 지녀야 했을 것이다. 호패는 일종의 신분증이므로 관가에서 발급했다. 그러므로 차남 익균이 아버지를 최초로 만난 것은 이미 40 세가 되었을 무렵이다. 그러니까 김병연은 40세 이후에 경북 안동, 강원도 평강, 전북 여산 그리고 현재는 충남 홍성洪城으로 이름이 바뀐 결성 등지를 유랑하였으며 전남 화순 동북에 오랫동안 기숙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작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병연의 차남 익균이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전남 화순 동북에서 돌아가신 것을 강원도 의풍면 태백산록에 모신 것도 매우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역적의 손자라는 울분 때문에 노모와 처자를 떼어두고 결식으로 방랑하던 아버지의 유해를 기어코 고향땅으로 모신 행위는 김병연 자신의 뜻과는 매우 어긋난 일이기도 하다. 폐족이라는 산송장이 학대와 멸시가 막대함을 참지 못하여 집을 나와 신분과 성명을 속이면서 샷갓으로 얼굴을 감추고 살았던 김병연의 혼령을 또다시 울분에 빠뜨린 꼴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김병연이 눈을 감은 지 1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양주군에서는 지역문화사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8개월간의 연구조사를 용역 위탁하여 임격정·김삿갓 태생지 고증 학술보고서를 펴내었다. 그리고 이범직은 “19세기는 조선왕조에서도 가장 급격한 변혁기로 내외적 혼란과 충격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위에서 김삿갓은 자신이 가진 시재(詩才)를 마음껏 발휘하여 민중을 자극하고 위로하며 지배층을 기롱하였다. 역시 양주골의 문화 역사적 배경이 이를 지지했다고 할 것이다.”<sup>9)</sup>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민중을 자극하고 위로하며 지배층을 기롱한 것은 작품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삿갓은 한사코 양주를 버리고 팔도를 유랑했다. 김병연은 태생지도, 성장지도, 수학처

9) 양주군·양주문화원, 『임격정·김삿갓 양주에서 태어 났는가?』, 양주 향토자료 총서 제3집, 2000, 32쪽.

도 밝히고 싶지 않았었다.

정대구는 김병연이 “52세~56세경(1858~1862) 금강산 등 강원도와 결성 외가 쪽을 유랑하다가 전라도 땅으로 들어간 듯”<sup>10)</sup>하다고 했다. 정대구는 이어서 “후손은 양평 등에 살긴 살아요. 김석동이라고요. 그런데 잘 몰라요... 영월에 김삿갓 묘가 있는데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삿갓이 화순에서 죽었는데 이곳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박영규 옹도 그렇고 군郡에서도 이곳의 사업을 크게 해버린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화순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도 무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비석이 하나 세워졌는데 원래는 여기인데 영월로 옮겨 갔다 해서 유허비를 세워 놓았어요. 이런 일들이 참 불확실한 근거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라고 진술했다.

필자는 위의 김병연의 태생지에 대한 학술 보고서를 펴내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이도남 상임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정대구 위원 답변에 귀를 기울일뿐이다.

이도남 위원: 김삿갓의 시나 관련행적에서 회암리에 대한 회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혹시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대구 위원: 그런데 김삿갓 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sup>11)</sup>

김병연의 시나 행적에서 회암리에 대한 회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등장하지도 않는 영월 땅에, 그리고 실제로는 김삿갓의 출생지라고 딱히 못박을 수도 없는 그곳에 난고문학관이 세워졌다. 난고문학관에 대해서 박대헌의 말을 들어본다.

2003년 10월 11일 영월군의 난고문학관이 문을 열었다. 이때의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에 건립된 난고문학관은 강원도 일선 및 문화관광

10) 상계서, 142쪽 및 208쪽.

11) 상계서, 207~208쪽.



벨트화사업의 일환으로 41억원을 들여 11만7, 63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853㎡ 규모로 완공됐다. (중략) 유물전시관에는 김삿갓 관련 각종 영상물과 음반류, 친필자료 등이 전시돼 있으며 문학전시실에는 시대별 문학작품 평가와 중요 문학 자료를 전시해 그의 시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sup>12)</sup>

이 논문에서 또한 박대현은 '1840년 후반에 동북면 구암리 창원정씨 서재를 소재로 쓴 시'라는 설명에 대하여 '문제선의 이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구일 뿐이다'라고도 했고 '이러한 김병연의 위작 글씨가 버젓히 난고문학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은 난고 김병연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문화의 수치이다'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김병연의 친필 여부에 대한 것이며 그의 전남 동북에서의 행적을 부정할 뜻은 아니다.

생각컨대 김병연의 시나 행적에서 회암리에 대한 회상도 없거니와 생가나 성장지, 수학처도 불분명하며 문학관에 위작 글씨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는 난고문학관이라면 그곳이 과연 그의 시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지 회의를 느끼게 한다.

### Ⅲ. 放浪의 시작

김병연은 선천방어사 김익순金益淳의 손자다. 김익순은 흥경래난 때 반란군에게 항복한 죄로 참형을 당했다. 김병연의 나이 겨우 6세 때였다. 예나 이제나 우리나라의 풍습은 어린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름부터 묻는 것이 보통이다. 이름을 대면 본本이 어디냐고 묻는다. 이어서 할아버지 함자衡字를 묻는 게 순서다. 아마도 김병연은 익자순자益字淳字라고 또 박또박 대답했을 것이다. 대체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대부분 사라진 뒤에도 이러한 것은 남는다. 더구나 김병연은 6세 때 폐족이 되면서 할아버지

12) 박대현, 「난고 문학관 김병연 친필 관련 자료의 진위에 대해」, 『고서연구』 21호, 고서연구회, 2003, 46~47쪽.

나 아버지의 이름을 절대로 입에 담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을 것이다. 만일 입을 열었다면 그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입에 담지 말라는 엄명은 김병연으로 하여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 더 곱씹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연이 백일장인지 과거시험인지를 보았는데 장원을 했으며 하필 시험 제목이 자기 할아버지 김익순을 매도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 그 충격으로 가출했다고 알려져 왔다. 역적의 손자는 과거시험 따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설혹 과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답안지에는 부친의 성함도 써야 하는 게 당시의 시험제도였다. 하물며 익명을 쓸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김익순을 매도한 시를 썼다는 따위의 속설은 어불성설이다.

일설에 의하면 김병연의 조부 김익순의 죄상을 규탄하는 논정가산충절사 탄김익순죄통우친 論鄭嘉山忠節死 嘆金益淳罪通于天이라는 과시를 쓴 사람은 관서關西땅 노진魯禎이라고 한다. 노진이 이러한 글을 쓴 동기는 다음과 같다. 김병연이 관서땅에 유랑하면서 필명을 날리자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노진이 김병연의 조부를 비난하는 시를 써서 유포시켰다는 것이다. 그런 뒤 김병연은 관서 땅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사실과 증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가설이지만 김병연이 지었다는 속설보다는 설득력이 있다. 이 가설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김병연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김병연은 가출한 뒤 꼭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임종할 때까지 고향땅을 밟지 않았다. 그의 차남 익균에게 세 번이나 붙들렸음에도 기어이 따돌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친이 살고 있는 결성 땅에 찾아가서도 먼발치에서 안부만 탐문했을 뿐 만나지도 않았다는 기록으로도 그 성격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김병연의 가출은 22세 때로 추정한다. 김병연을 만났던 황오黃五는 그를 “호음주 희광학 선위시 주감왕왕욕대곡지 평생부작거자업 개기인야 好飲酒 喜狂謔 善爲詩 酒酣往往欲大哭之 平生不作舉子業 盖畸人也”<sup>13)</sup>라고 하

13) 黃五, 『金莎笠傳』, 『綠此集』 2권, 한성도서, 1932, 1쪽.

였다. 그가 만난 김삿갓은 술을 좋아하고 미친 사람 같았으며 시를 잘 지으나 술에 취하면 통곡하고, 과거시험에도 응시하지 않는 기인이었다. 때는 을사년乙巳年 즉 김병연의 나이 39세때인 1845년이었다. 김병연은 그때 곁에서 잠을 자던 황오를 발로 차서 깨우더니 자기는 해마다 춘추로 금강산 구경을 다닌다고 말했다. 금강산의 풍광을 그린 많은 한시들은 이 때를 전후로 쓰여진 듯하다. 금강산을 구경하며 속세를 떠난 비경에 몰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병연은 금강산의 풍광만을 노래했을 뿐 그곳의 인심人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IV. 김병연시에 나타난 地方 人心

1930년 이용수는 중외일보, 동아일보 등에 김병연에 대한 연구물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39년 최초로 『김립시집』을 간행했다. 이후 1941년 증보판을 내었으며 1956년 북한에서 『풍자시인 김삿갓』을 끝으로 3번에 걸친 시집을 내었다. 이 시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 과시科詩를 제외한 오언절구 五言絶句, 칠언율시七言律詩는 모두 217여편이 된다. 정대구는 248편<sup>14)</sup>을 제시했으나 이 차이는 이용수의 『김립시집』 이외의 작품까지 추가했기 때문이다.

『김립시집』에서 김병연의 작품에 지명地名이 직접 표기되거나 이용수가 주석에서 위치를 밝힌 한시는 64편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 함경도 각각 12회, 평안도 7회, 경기도 6회 순으로 빈도수를 보인다.

강원도에서 쓴 시가 많은 이유는 금강산을 자주 찾아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모두 64편 가운데 자신(김병연)에 대한 푸대접, 멸시로 인하여 그 지방의 인심을 풍자, 조롱한 작품은 11편이다. 『김립시집』 가운데 김병연이 냉대와 수모를 당했다고 추측되는 작품은 <이십수하>, <강좌수축객시>, <풍속박>, <육설모서당>, <훈계훈장>, <농시>, <승풍악>, <조산

14) 정대구, 『김삿갓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83~95쪽.

로>, <양반론> 등 9편인데 아쉽게도 그 지방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차후의 검토를 통하여 밝힐 기회를 갖기로 하겠다.

작품수가 가장 많았던 금강산에서 쓰여진 시는 대체로 풍광을 읊은 작품들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시객힐거>는 선비들과 약간의 마찰을 빚었던 작품이다. 김병연은 '나는 본래 하늘 위의 새로서/ 항상 오색 구름 속에서 노니는 몸이었다/ 오늘 밤 풍우가 심한 탓에/ 잘못해서 들새때 가운데 떨어졌노라'고 했다. 시객들을 들새로, 자신을 봉황으로 비유하여 냉대에 대한 분풀이를 했던 것이다. 함경도에서 쓴 작품 4편 가운데 <봉황과 새>도 '봉황새(김삿갓)가 청산에 날아드니 새(집주인)가 수풀에 숨고/ 용(김삿갓)이 바다에 떠오르니 물고기(집주인)가 물 속으로 숨는다'고 하면서 방문訪問을 회피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집주인의 성씨가 정鄭이므로 '당나귀'를 뒤집어 읽도록 <귀락당貴樂堂>이라는 당호를 지어주고 달아나기도 했다.

<육운가춘>은 '동림산 아래에 봄풀이 푸르러서 먹음직하면 황소와 송아지가 긴 꼬리를 휘둘러 반기는구나/ 오월 단오날에도 잡혀 먹힐까 근심속에 지냈는데/ 돌아오는 팔월 추석에도 또한 잡혀 먹힐까 두려워하네'라고 읊었다. 역시 수리愁裡·술의戌衣, 가외可畏·嘉優라는 동음이자同音異字를 이용하여 윤씨尹氏를 조롱한 내용이다. 12간지의 축丑은 소를 상징하는데 축자丑字에 꼬리를 붙이면 윤尹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 이곳에서도 김병연이 환대를 받지 못했던 모양이다.

<길주명천>은 '이름만 길주길주라고 했지 길한 고을은 못 되고/ 성씨만 허가허가했지 과객은 허락해 주는 곳은 없다/ 명천명천 부르지만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고 어물전어물전 자랑하지만 밥상에는 고기 한 마리 없구나.'라고 과객을 재워주지 않는 길주 땅의 풍속을 비난했다. 참으로 명실名實 이 상반相反되는 땅이름과 인심을 한 눈에 알 수 있겠다.

김병연이 함경도 일대에서 많은 시를 썼으나 풍자와 조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도 김병연이 맨 처음 기출하여 한 끼 식사와 잠자리를 빌었던 곳이 함경도 지방이었던 까닭일지도 모른다. 혈기 넘치는 20대 청년이 울분을 품고 방랑하면서 구걸을 했을 때의 태도가 공

손할 리 없었을 것이다. 방망이에 흥두께라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누구나 빈궁했던 그 시절, 밥을 얻어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력질도 이골이 나와하는데 거렁뱅이 초년생 김병연은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변뜩이는 그의 시재詩才에 걸려든 길주吉州니 명천明川 따위의 고을 이름은 고양이 발톱에 덕석처럼 안성맞춤으로 풍자시를 쓰게 만들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으로 많은 지방이 평안도인데 <묘향산시>, <대동강연광정>, <대동강상>, <부벽루음>, <등백상루>, <평양>, <기생과의 합작> 등이 있다.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산이나 강 그리고 정자 등을 읊었거나 기생과 놀아난 내용을 시화한 작품이다. 평양이 색향이라는 말도 있으나 아마도 이 지방에서의 김병연은 비력질도 이골이 났을 것이며 이런 시들의 창작시기는 인기가 상승했던 30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6회에 달하는 경기도 지방에서 쓴 시들은 매우 직설적이다. 경기도에서의 <개성인축객시> 역시 지명에 얽힌 인심을 신랄하게 표출했다. 견해에 따라서는 김병연이 푸대접을 받지 않는 않지만 개성開城, 송악松嶽 등의 지명이 그로 하여금 시를 짓도록 자극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성관덕정음>이 ‘○○놈들 ×이나 먹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문자놀음이 아니라 그 지방에 대한 원한이 컸던 모양이다. 이응수는 이 시를 쓴 시기가 22세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하 전편을 보도록 하겠다.

邑號開城何閉門	고을 이름은 ‘성을 연다’는 ‘개성’인데 어찌 문을 닫으며
山名松嶽豈無薪	산 이름은 ‘소나무가 많다’는 ‘송악산’인데 어찌 땀나무가 없다는 말인가?
黃昏逐客非人間	황혼에 찾아온 손을 쫓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못 되나니
禮義東方子獨秦	예의 동방의 나라에서 이곳만이 진시황처럼 흉악하도다.

<개성인축객시開城人逐客詩> (진문)

위 시에서는 김삿갓을 채워주지 않으려는 핑계로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땀감이 없다고 한 모양인데 하필 산의 이름이 송악이었다. 김삿갓은 이것

을 놓치지 않았다. 개성의 인심을 땅이름에 담아낸 기지를 보게 된다.

日出猿生原 元生員	해가 뜨니 '원숭이'가 언덕 위에 뛰어 다니고
貓過鼠盡死 徐進士	고양이가 지나니 '쥐'가 모두 몰살을 했네
黃昏蚊簷至 文僉知	황혼이 되니 '모기'가 처마에서 앵앵거리고
夜出蚤席射 趙碩士	밤이 되니 '벼룩'이 자리 틈에서 쏘아대네.

또 위에서는 지방 유지라고 뽑내는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 등을 짐승과 벌레에 빗대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이 피상적인 문자놀음이 아니라 논문의<sup>15)</sup> 있다. 김병연은 지방 토호들이 자랑삼아 부르는 호칭을 모두 양민의 피와 재물을 빨아먹고 사는 모기, 쥐, 벼룩 등에 비유하여 그들을 조롱하였다.

安岳城中欲暮天	안악성 안에 짧은 해가 지려고 하는 무렵
關西孺子聳詩肩	관서의 시골 유생(儒生)이 시 자랑으로 어깨를 으쓱대는구
村風厭客遲炊飯	시골의 풍속은 나그네를 꺼려서 일부러 밥을 늦게 짓고
店俗慣人但索錢	주막집 습속도 고약해서 단지 돈만 알도다.
虛腸雷聲頻有響	허기진 배에서는 우렛소리가 진동하고
破窓透冷更無穿	깨어진 창문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와서 더 뚫을 여지도 없도
朝來一吸江山氣	아침에는 강산의 기운을 공짜로 한번 들이마시고
試問人間辟穀仙	시험삼아 인간으로서 벽곡하는 신선이 누구냐고 물어보리라.

<과안악견오過安岳見忤> (전문)

위 시는 <과안악견오過安岳見忤>인데 견오란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김삿갓이 이곳 관서關西 땅에서 숙식宿食 문제로 매우 섭섭한 일을 당했던 모양이다.

吉州吉州不吉州	이름만 길주길주라고 했지 길한 고을은 못 되고.
許哥許哥不許可	성씨만 허가허가 했지 과객을 허락해 주는 곳은 없다.

15) 이진호, 『金炳淵詩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122쪽.

明川明川人不明 명천명천 부르지만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고  
 漁佃漁佃食無魚 어물전어물전 자랑하지만 밥상에는 고기 한 마리 없구나.  
 <길주명천吉州明川> (전문)

이제는 김삿갓이 아주 터놓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물론 실제의 경험적 소산이 아니고 길주吉州, 명천明川, 어전魚佃 등의 지명이 그의 천재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냥 지어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객을 재워주지 않았다는 길주땅의 풍속으로 보아 터무니 없는 비아냥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沃溝金進士 옥구에 사는 김진사가  
 與我二分錢 나를 거지 대접하여 두 푼 돈을 던져 주더라.  
 一死都無事 인생이 한 번 죽으면 이런 꼴도 안 볼 걸  
 平生恨有身 아, 평생에 이 딱한 몸이 살아서 한이로다  
 <옥구김진사 沃溝金進士> (전문)

위 내용은 매우 노골적인 신세타령이며, 직설적이다. 김삿갓이 그 돈을 주워서 술을 마셨는지 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그 엽전을 김진사의 얼굴에 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건 적건 엽전이라도 두 닢 준 전라북도의 인심은 차라리 거절보다는 나올지 모른다.

晉州元堂里 진주 원당리에 와서  
 過客夕飯乞 과객이 저녁밥을 빌었도다.  
 奴出無人云 종놈이 나와서 사람이 없다고 말하더니  
 兒來有故曰 아이놈이 와서는 집안에 변고가 있다고 말한다.  
 朝鮮國中初 이런 인심은 우리 조선 땅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요  
 慶尙道內一 이 경상도 안에서도 이런 집은 하나뿐일 것이다.  
 禮義我東方 예의로 이름 높은 우리나라에서  
 世上人心不 참으로 세상 인심은 아니로다.  
 <진주원당리 晉州元堂里> (전문)

여기서 김삿갓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의 말대로 ‘이런 인심은 조선 땅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요/ 이 경상도 안에서도 이런 집은 하나뿐일 것이다’라는 절규에 공분을 느낀다. 그 누구도 이런 땅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22세때 처음 가출하였다가 차자 익균에게 세 번이나 붙들렸지만 기어코 귀향하지 않았던, 노모가 살던 결성結城 땅에 갔었으나 멀리서 바라 보기만 하다가 발길을 되돌렸던, 노진이 <논정가산총절사 탄김익순죄통우천>을 지어 유포하자 결코 관서땅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던 그 고집불통의 김병연, 그의 전라남도에서의 행적은 어떠했는가를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V. 전남에서의 位相

이응수는 김병연의 한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남도南道는 직접 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라북도 남원이 배경이 되는 <등광한루登廣寒樓>가 등장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김병연이 전라남도에도 유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가 말하는 평생이란 가출이후 사망까지의 35년을 말한다. 그의 많은 작품 가운데 가출 이후 세상을 떠날 무렵인 50세 이후 57세 사이에 쓰였다고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無窮四十年間事	한 많은 지난 40평생
回首今宵又一悲	돌이켜 생각하니 오늘 밤 더욱 슬프도다
	<청효종聽曉鍾> (부분)
浮浮我笠等虛舟	가뿐한 삿갓 빈 배와 같고
一着平生四十秋	한 번 쓰니 평생 가는 구나
	<영립詠笠> (부분)



萍水三千里浪跡    삼천리강산 부평초 같이 떠돌면서  
 琴書四十年虛事    시詩나 읊조리던 40년이 모두 허사로다  
 <자탄自嘆> (부분)

이상에서 보듯 그는 샛갯을 쓰고 유랑하는 자신을 허주虛舟, 부평초浮萍草, 또는 다른 구절에서는 월조越鳥 등으로 비유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다가가고 있었다. 다음 작품 <과보림사>는 보림사寶林寺라는 사찰의 이름이 분명하게 제목으로 등장한다.

窮達在天豈易求    빈궁과 영달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쉽게 바꾸리오  
 從吾所好任悠悠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마음대로 유유히 지내도다.  
 家鄉北望雲千里    북으로 먼 고향을 바라보니 구름은 천리나 되고  
 身勢南遊一海漚    나그네의 신세로 남쪽에 놀고 있으니 바다 위의 한낱 물거품 같도다.  
 掃去愁城盃作籌    술잔을 비 삼아서 쌓인 시름 쓸어 버리고  
 釣來詩句月爲鉤    시구詩句를 낚아 오니 초승달이 낚시가 되었는가?  
 寶林看盡龍泉又    보림사 절 구경을 다 하고 또 용천사를 보니  
 物外閑跡共比丘    속세를 떠난 한가로운 내 몸이 비구승과 한가지로다.  
 <과보림사 過寶林寺> (전문)

이 시는 <난고평생시>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앞서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목적지인 동북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날이 저물어 잠시 묵었던 곳이 아닐까. 보림사는 전남 장흥의 가지산에 있는 사찰이다. 장흥 유치면 보림사에서 보성을 경유하면 바로 동북이다. 또한 지리산이나 구례, 옥과를 경유하여 동북에 머물렀다가 장흥으로 갈 수도 있다. 보림사에서 실제로 승려와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은 있다. 김병연은 금강산의 시승詩僧과 화답시를 쓰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날 시인은 북쪽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술잔을 기우린다. 냉대와 멸시를 당하던 다른 지방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 무렵 자기를 환대하는 고장으로 찾아가는 행로를 ‘남유南遊’라고 했다. 김병연의 ‘남유南遊’와 다음에 소

개할 김시습의 ‘탕유호남宕遊湖南’과는 그 분위기가 매우 유사하다. ‘탕유호남을’ 줄여서 뒤집으면 ‘남유南遊’가 된다. 물론 남유라는 말에는 유랑의 뜻도 있겠지만 교제와 휴식과 즐거움이 잔잔히 깔린 정경이다. 그리고 그는 보림사를 떠나 용천사龍泉寺로 갔다. 용천사는 역시 전남 담양에 소재했던 사찰이다. 전라남도 이외의 지방에서 쓴 작품들인 <개성축객시>, <원생원>, <과안약견오>, <길주명천>, <옥구김진사>, <진주원당리>는 수모나 푸대접을 받았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쓴 작품들은 매우 평온한 심사가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라도 모처라고 한 <증모녀>는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밥이나 술 또는 잠자리를 청한 것이 아니라 동침同寢을 구걸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이니 구박이나 냉대라고 인심을 타할 문제가 아니다.

이응수 『김립시집』 이외의 출처로는 권영한의 <쟁계암爭鷄岩>이 있다.

雙岩並起疑紛爭    쌍으로 된 바위가 서로 다투듯 서 있는데,  
一水中流解忿心    한 줄기 물이 가운데로 흐르며 분한 마음 풀어 주네.  
<쟁계암 爭鷄岩> (부분)

권영한은 ‘전라남도 강진군 보은사 부근’이라고 다음과 같이 해설을 붙였다.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보은사 부근에는 옛날부터 쟁계암(爭鷄岩)이라고 하는 두 바위가 개울가에 나란히 마주 보고 싸우는 듯이 서 있다. 그리고 그 두 바위 사이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김삿갓이 그곳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이들 두 바위가 싸우지 못하도록 글을 지어 달라고 부탁한다. 물 한 줄기가 두 바위의 모든 울분을 씻어 주듯 그 사이를 흘러가니 이제부터는 싸우지 않으리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지었다.<sup>16)</sup>

그러나 쟁계암은 보은사 부근이 아니라 금곡사金谷寺라고 하는데 그곳

16) 권영한, 『김삿갓시』, 전원문화사, 2001, 360쪽.

에는 김병연이 읊은 정경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금곡사에는 <쟁계음爭鷄吟>이라는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또한 김병연의 전남 화순 동북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다음 작품에 나타나 있다.

江非赤壁泛舟客    강은 적벽이 아니어도 배를 띄운 나그네.  
 地近新豐沽酒人    땅은 신풍에 가까워 술을 팔고 사 마신다.  
 今世英雄錢項羽    오늘날의 영웅은 누구이더냐 돈 많으면 항우로다.  
 當時辯士酒蘇秦    그 당시 변사는 또 누구이더냐 술 잘하면 소진이로다.  
 <범주취음泛舟醉吟> (전문)

적벽赤壁은 중국 호북성 양자강의 남쪽 강가를 말한다. 적벽전赤壁戰이나 적벽부赤壁賦로 잘 알려져 있다. 전남 화순의 동북 근거리에도 적벽이라는 명소가 있다. 이 시에서 ‘강비적벽江非赤壁’이라는 부분은 지금 자신(김병연)이 배를 띄운 이곳이 비록 ‘중국의 적벽’은 아니지만 이름이 같은 ‘화순의 적벽’임을 암시하고 있다. 지금도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을 김병연이 찾아가지 않았을 리 없다. 틀림없이 그 곳에 배를 띄우고 술을 마셨을 것이다. 이 후에 나오는 가칭 <무등산시>에도 ‘적벽赤壁’이라는 지명이 확실하게 등장한다. 이 작품에 대하여 정공채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이 작품은 김삿갓이 전남 화순군 동북 땅에서 별세하기 얼마 전에 씌어졌지 않나 싶다. 강은 비록 양자강의 적벽이 있는 데가 아니어도, 이곳에 배 띄울 좋은 강물이 흐르고 깎아 세운 듯한 붉은 빛깔 도는 절벽이 있어 그 이름도 역시 적벽이다.<sup>17)</sup>

기타, 이응수의 『김립시집』에는 실려있지 않으나 정대구는 <옥과대환정운玉果大還亭韻>과 <증영광취김명회贈靈光倅金明會>라는 작품이 더 있

17) 정공채, 『오늘은 어찌하라』, 학원사, 1985, 384쪽.

다<sup>18)</sup>고 했다. 이 시의 제목에 보이는 옥과와 영광 역시 전라남도에도 있는 지명이며 화순 동북과는 매우 근거리이다. 옥과 ‘대환정大還亭’의 풍광을 읊었거나, ‘김명회金明會’에게 준 시라면 그 내용이 조롱이나 비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대구는 그 시의 원문을 강원도 영월의 모인에게 양도해 버렸다고 한다. 이 시에 대해서는 차후에 원문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무등산을 소재로 한 시를 포함하여 4편이 더 있다. 이것까지 합산하면 전라도와 관련된 작품은 모두 10편이나 된다. 문제선의 논문에 의하면 도광道光(중국의 연호, 필자주) 30년(1850년) ‘동북어소同福於所’에서 라고 쓴 4편의 자필 시구詩句가 지금 창원정씨昌原丁氏 문안에 원형 보존되어오고 있다.<sup>19)</sup> 그 내용을 요약(저자의 승인을 받았음. 필자)하면 다음과 같다.

無等山高松下在 무등산 높다지만 소나무 아래 있고  
赤壁江深沙上流 적벽강 깊다더니 모래 위로 흐르네

위의 시상으로 보아 광주에서부터 무등산 장불치를 넘어 적벽을 거쳐 동북에 오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藥徑深紅蘚 약 캐러 가는 길가엔 붉은 이끼가 깊게 깔려있고  
山窓滿翠微 창밖에 산에는 푸르름이 가득한데  
羞君花下醉 그대 꽃 아래 취해 있음이 부럽구려  
胡蝶夢中飛 나비는 꿈속에서 날고 있겠지.

구암 마을 서편 와우蝸牛 산록에 있었던 망미대望美臺 정씨丁氏 소유의 정자에서 시상을 얻어 썼구나 하는 추측이 된다. 이 정자에서 보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 있고 앞에는 굴바위들과 새뿔들이 널리 펼쳐 있고 아득히 멀리 동북 소재지와 용성산(적벽을 이룬 주봉)이 불그스레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산색이 보

18) 정대구, 전계서, ‘김삿갓시일람표’, 90~93쪽.

19) 문제선, 전계논문, 76쪽.

랏빛으로 아름답게 솟아 있음을 보고 느낀 시상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된다.

郡樓乘曉上	새벽 일찍이 누각樓閣에 올라
盡日不能回	진종일 돌아갈 줄 몰랐네.
晚色秋將至	석양 빛깔은 가을이 이르러함인지
長風送月來	긴 바람이 불어가드니 달이 솟아 오는구나.

이는 동북현의 동현 앞에 있었던 협선루俠仙樓에 올라 동북 시가지를 내려다 봄은 물론 널따랗게 펼쳐진 번지들, 향교들, 만경들과 남북으로 유유히 흐르는 동북천의 비경과 멀리 서북편에 높이 솟아 있는 성산 무등산 등의 운치에 매료되어 그 정취에 취해 해지는 줄 모르다가 이 누각의 일경—景인 동산東山 월출 月出을 보고 황홀한 풍경에 반해 읊어진 시임이 자명한 시구詩句라고 볼 수 있다.

협선루는 지금 훼손되어 없어진지 오래다. 김병연의 한시에는 부벽루浮碧樓, 백상루百祥樓, 표연정飄然亭, 구천각九天閣, 북루北樓, 연광정練光亭, 관덕정觀德亭, 광한루廣寒樓(전북 남원), 대환정大還亭(전남 옥과) 등 누정을 소재로 한 시가 많다. 그는 조운경趙雲卿과 함께 어느 정자亭子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자고로 호남 지방은 누정이 많았는데 김병연이 이곳 호남을 자주 찾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다음 예문에서 그러한 정황을 일단을 짚어보겠다.

호남의 누정문학은 왕조교체기(1392) 세조의 쿠데타(1455) 연산군 때의 사화(1498, 1504) 중종 때의 사화(1519, 1545) 등을 거치면서 문학의 한 장르로 성장해 갔다. 왕조 교체기에 전신민에 의해 건립된 담양의 독수정을 위시한 조선 초기의 정자는 물론 조선 중·후기의 누정은 강학, 휴식, 그리고 시문제작의 중심지였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정 제영의 형식과 내용이다. 호남시인이 주를 이뤄 제영을 남긴 면양정, 식영정, 소쇄원 등의 시편들은 그 형식의 연작형태가 눈에 띄거니와 이는 그만큼 풍부한 시정詩情의 반영이라는 측면과, 무언가 할 말이 많다는 현실에의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sup>20)</sup>

누정은 단순한 휴게소나 가무음주를 하는 곳이 아니라 ‘강학과 휴식 그리고 시문제작의 중심지’라고 한바와 같이 김병연도 책과 벼루 그리고 묵향 이외에 ‘더 무엇을 구하리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半虧書架數券冊    반남어 이즈러진 서가에는 수 권의 책이 있고  
傳傳世世一個硯    대대로 전해오는 벼루 한 개가 있네,  
墨香深醉自心閑    묵향기에 깊이 취하니 마음이 스스로 한가롭구나  
微軀此外何所求    미약한 몸 이밖에 무엇을 바라리오.

이는 동북 구암 창원정씨 서제書齋에서 사람의 대접을 받으며 한가로이 머물면서 정씨 가문의 정황을 그대로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상 4편의 시는 자필이 아니라는 시비도 있으나 김병연의 자작시라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다. 이들의 시에 원래 제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보림사는 명백히 전남 장흥에 있으며, <등광한루>의 광한루는 전북, 그리고 <증모녀>는 ‘전라도’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등>에 대해서 이명우는 <구례에서 등잔불>이라고 제목을 고쳤으며 지리산을 찾아가는 길에 쓴 것이라고 했는데 구례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등>까지 합산하면 전라도에서 쓴 또는 전라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모두 10편이다.

『김립시집』 증보판에는 <난고평생시蘭皋平生詩>가 맨 처음 실려 있다. 이 작품은 형식상 과체시<sup>21)</sup>로서 본래는 36행이지만 마지막 2행이 누락되었다. 제목에서 보듯 내용은 시인의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탄식과 슬픔을 가장 심도있게 쓴 것이 <난고평생시>라고 보겠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 최한선, 『서술시 운동으로 본 호남한문학 전개양상』, 카톨릭센터 강의 자료(광주), 2005, 6쪽.

21) 科體詩 : 과거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시의 형식. 과시科詩 또는 공령시功令詩라고도 함.

鳥巢獸穴皆有居  
 顧我平生獨自傷  
 芒鞋竹杖路千里  
 水性雲心家四方  
 尤人不可怨天難  
 歲暮悲懷餘寸腸  
 初年自謂得樂地  
 漢北知吾生長鄉  
 簪纓先世富貴人  
 花柳長安名勝庄  
 隣人也賀弄璋慶  
 早晚前期冠蓋場  
 髮毛稍長命漸奇  
 灰劫殘門翻海桑  
 依無親戚世情薄  
 哭盡爺孃家事荒  
 終南曉鍾一納履  
 風土東邦心細量  
 心猶異域首丘狐  
 勢亦窮途觸藩羊  
 南州從古過客多  
 轉蓬浮萍經幾霜  
 搖頭行勢豈本習  
 揆口圖生惟所長  
 光陰漸向此中失  
 三角青山何渺茫  
 江山乞號慣千門  
 風月行裝空一囊  
 千金之子萬石君  
 厚薄家風均試嘗  
 身窮每遇俗眼白  
 歲去偏傷髮髮蒼

새들도 둥지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어 살 곳이 있는데  
 내 한 평생을 되돌아보니 나홀로 마음 아프다.  
 짚신 신고 대지팡이 짚고 천리 길을 떠도는데  
 흐르는 물과 같이, 떠도는 구름같이 사망이 내 집이었네.  
 사람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함이 옳지 않고 어려우니  
 한 해가 저물어 슬픈 회포만 마음에 남는도다.  
 나이 어릴 때는 행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한양 도성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었노라.  
 벼슬이 높았던 선조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었고  
 아름다운 장안에서도 이름 높은 집안이었다네.  
 이웃 사람들 옥동자(아들)를 낳았다고 축하하였고  
 머지 않은 장래에 공명을 얻으리라고 미리 기대했었다.  
 턱수염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감에 따라 운명이 점차 기박해져서  
 가문이 멸족되어 상전벽해桑田碧海 되어 버렸도다.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 없고 세상 인심은 아박하기만 한데  
 부모님마저 별세하시니 집안이 몹시 황폐해졌네.  
 종남산 새벽종이 울자 짚신 한 켤레를 신고서  
 동쪽 풍토를 향해 길 떠날 것을 결심했다네.  
 마음은 이역異域에서 고향을 향해 머리 둔 여우와 같고  
 형세 또한 곤궁하매 울타리에 뿔 걸린 수양 같더라.  
 남쪽 고을에는 예로부터 길가는 나그네가 많았으니  
 쭉대가 굴러다니고 부평초가 떠다니듯 몇 해를 보냈던가!  
 머리를 굽신거리야 하는 신세가 어찌 타고난 본래의 습성이겠는가!  
 입을 놀려 살길을 피함 내가 할 일이로다.  
 세월은 점차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사라져가고 있으니  
 삼각산 푸른빛이 어찌 그리도 멀고 아물아물한가!  
 팔도강산에서 구걸하는 소리 수많은 문전에 익숙해졌고  
 음풍농월을 벗을 삼고 살아가니 행장의 배낭은 텅 비었구나.  
 부잣집 아들과 만석꾼 부자들을 두루 만나  
 가풍의 후박함을 진실로 골고루 맛보았도다.  
 몸이 궁하니 만나는 사람에게 마다 눈 흘김을 당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머리털이 희어짐을 슬퍼하노라.

歸兮亦難行亦難 집에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한 머물러 있기도 어려우니.  
幾日彷徨中路傍 얼마나 지나 긴 날들을 길가에서 방황해야 하는가?<sup>22)</sup>  
<난고평생시蘭阜平生詩> 전문

김병연은 <난고평생시>에서 자기의 신세를 수구호首丘弧 즉 여우가 죽음에 이르러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던가, 촉번양觸藩羊 즉 울타리에 뿔이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 그리고 쑥대나 부평浮萍에 비유했다. 김병연은 이토록 남주南州에는 원래 과객이 많았는데 자기도 그곳에서 여러 해 떠돌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우는 이 시를 김병연이 임종했던 전라남도 동북에서 지었으리라고 추측하면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재구성했다. 김병연은 그날 <난고평생시>를 쓰고 동북에서 눈을 감았다고 한다. 물론 상상의 장면이지만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충분하다.

서울과 경기지방에서 겨울을 보낸 김삿갓은 따뜻한 남국의 햇볕이 그리워졌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달포 남짓하여 김삿갓의 지팡이는 전라도 화순 동북방 안참봉의 문전에 당도하였다. (중략) 김삿갓이 오랜 방랑 생활에서 지치게 될 때면 안참봉 댁을 찾았고, 안참봉은 친 형제나 다름없이 맞아들이고 환영해 주었다.

김삿갓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비록 새옷은 아니지만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림질 해 두었던 안참봉의 옷으로 갈아 입힌 후 마주앉아 술잔을 나누면서 안참봉은 속으로 몹시 놀랐다. 그것은 김삿갓의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눈동자는 이미 빛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3)</sup>

이러한 추측과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논자들의 견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논한 글을 또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龜岩里 丁昌鎭의 5대조인 丁致業(1692~1768)은 학문이 고매하고 효성이 탁월

22) 이명우, 「김삿갓 金笠詩集」, 집문당, 2000, 27~28쪽.

23) 상계서, 31쪽.



하여 아버지를 섬기는데 극진한 정성을 다하여 고종 때 동몽교관으로 포장을 받았다. 그는 집안 가솔들에게 충효와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위해 『百忍集』이란 문집을 만들어 자자손손이 <警蒙歌>를 읽고 실행하도록 하는 유고를 남겼다. 특히 “오는 손님을 박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는 말을 가훈으로 남겼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후손들이 지금껏 이 가훈을 실천하고 있다. 정치업의 손자들인 정남역(1794~1866)과 정남규(1797~1868)는 각각 56세와 53세로 작고한 형 정남주를 대신하여 당시 13세였던 가문의 종손인 어린 조카 정시용(1837~1909)을 돌보며 글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다. 따라서 두 형제들은 46세인 金炳淵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과객에 대한 대접이 남달랐던 이곳을 金炳淵은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4)</sup>

김병연의 <난고평생시>에 보이는 ‘남주종고과객다南州從古過客多’라는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주南州’는 ‘호남湖南’이라는 공간을 지칭한다. 호남으로 ‘과객過客’이 많이 찾아다니거나 인구의 이동이 원활하려면 도로의 소통이 좋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전남지역은 3면이 바다로 서남해와 인접된 해안선과, 이에 연결되면서 내륙의 혈맥이 되는 영산강·섬진강·탐진강의 연안수로가 발달한 지역이다. 이 바닷길과 연안수로는 전남지역의 고대문화가 성장하는 기초배경이기도 하였다. 이 바닷길(‘물길’)은 흡사 오늘날의 철도교통이나 고속도로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 물자와 인구, 문화가 이동하는 길목이었다. 더욱이 강과 해안에 연하여 발달한 평야지대와 깎벌은, 고대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마련해주었고, 이웃의 다양한 문화들과 교섭하면서 문화적 선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여진다.<sup>25)</sup>

그렇다면 ‘종고從古’라는 시간의 시점은 어느때인가? 위의 예문이 ‘고대 문화’의 성장배경을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고從古’라는 시간은 청동

24) 이근호, 전계논문, 49쪽.

25) 최협, 전계서, 68쪽.

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사문학(歌辭文學)의 산실이며 판소리의 고장일뿐만 아니라 의병, 동학혁명,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의 진원지로 이어지는 호남은 일찍이 단순한 인구의 이동뿐만 아니라 과객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병연은 ‘남주종고과객다(南州從古過客多)’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시와 술을 사랑했던 근대 이전의 방랑자 김시습(金時習)(1435~1493) 역시 호남을 유람하고 『탕유호남록(宕遊湖南錄)』을 엮었다. 김시습의 족적은 장성(長城) → 전주(全州) → 변산(邊山) → 영광(靈光) → 나주(羅州) → 광주(光州)(무등산) → 화순(和順) → 남원(南原)(지리산)을 거쳐 경상도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탕유호남록후지」를 적었다.

내가 관동을 다 유람한 뒤 다시 호남에 이르러 늙은 매화와 성근 대나무, 거울치자와 아름다운 난초를 보았다. 굴·유자와 가을에 익은 벼, 비자와 동백과 동청(冬靑: 사철나무)도 역시 멋진 볼거리였다. 감, 밤, 생강, 면화, 바다 지방의 여러 진품들도 많았는데, 백제는 바로 이런 것들에 의지하여 부유할 수 있었다. (중략) 잘살게 되자 비로소 사람들이 착해져서 저마다 학문으로 나아가 역세고 뻔대는 습속을 바꾸어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염치를 알게 되었고, 대대로 훌륭한 인제가 나와 왕실을 보필하였다. 이에 국경에는 근심이 없고 난리를 알리는 봉화도 밋었다. 이것은 성스런 왕조의 상서라 하겠다.<sup>26)</sup>

호남 지방은 자고로 물산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난하며 또한 풍광이 수려하다. 인정이 넘치고 예인을 많이 배출한 호남지방을 자주 찾은 과객이 어찌 김시습과 김병연 뿐이었겠는가! 김병연은 35년간 시주(詩酒)로 방랑하며 수많은 산천과 누정을 읊으면서 그의 발걸음은 호남땅을 자주 밟게 되었다. 그 까닭은 호남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장가인 가사문학은 거의 호남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만큼 이 지역이 그 배양지로 가능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적되곤 한다. 어떤 이는 호남의 자연조건이 땅이 넓고 기름져 호남인들의 기질이 낙천적일 수

26)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199쪽.

밖에 없었고 바로 이러한 낙천성이 이 고장의 예술과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선비들의 은거지나 유배지로서 광주·전남지역이 만들어낸 독특한 조건과 정서가 가시문학을 포함하여 기타 음악이나 학문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지역에는 가시문학과 관련된 수많은 누정과 정원들이 산재해 있고, 그러한 유적들은 예외없이 앞서 언급한 자연과의 조화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식영정, 소쇄원, 녹우당, 면양정, 송강정, 명옥헌 등.<sup>27)</sup>

지금도 전남은 예향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호남의 문인들을 생각하는데로 열거하면 작고한 (신석정, 김현승, 이수복, 고정희, 박성룡, 서정주, 조태일, 정채봉...) 문인은 물론, 수많은 (조정래, 한승원, 이청준, 김승옥, 서정인, 송기숙, 최승범, 문병란, 김지하, 김준태, 고재중, 송수권, 임동학, 허형만, 범대순, 서정춘, 양성우, 김용택...) 현역 작가들이 그 명실상부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남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음의 예문이 잘 말해준다.

조선실학의 본산이 호남실학이라는 후학들의 평가는 맞다.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기강을 세워 목은 국가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 국학 전통학의 부흥을 일으켜 민족의 자강과 새로운 현대국가를 이룩하려 했던 선진적 사상, 이 고장의 풍토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이 독자성은 근대 민중운동으로 발전하여 한국의 현대화에까지 그 줄기가 닿아있다.<sup>28)</sup>

마침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광주타임스의 ‘관광인프라 구축 320억 투입’이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더구나 전남도의 개발사업비가 전년에 대비하여 44%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돈이라면 강원도의 난고문화관 같은 시설 10개는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광주 타임스 박진표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7) 최협, 『광주·전남의 문화유산과 잠재력』, 전개서, 98쪽.

28) 남성숙, 『湖南思想 호남문학』, 도서출판 민, 1995, 9쪽.

전남도가 ‘관광 입도’를 목표로 관광인프라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14개소 139억원을 비롯해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12개소 92억원, 관광지개발 4개소 39억원, 생태녹색관광 5개소 47억원, 관광진흥기금 사업 3억원 등 전체 39개소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략) 도 관계자는 “관광 전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sup>29)</sup>

## VI. 맺는말

난고蘭阜 김병연, 속명 김삿갓은 역적의 손자라는 자괴감을 견디지 못해 노모와 처자를 버리고 가출했다. 그리하여 35년 동안 삼천리 방방곡곡을 유랑 결식하며 시작詩作과 음주로 일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는 냉대와 수모에 가슴을 아파하며 고향을 그리워했다. 타향살이는 누구에게나 고달프지만 가문과 성명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망향의 세월이었다. 얼굴조차 숨기고 싶어 삿갓을 썼다. 차남 익균에게 붙들렸을 때 타의에 의해서라도 귀향할 수 있었지만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세의 연구자들은 그의 출생과 가계를 캐내며 ‘난고문학관’을 세워 세상에 알리고 있다. 김병연이 생전에 그토록 숨기고 싶던 사실들을 들춰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의 주된 창작 무대나 마음의 안식처가 어디였던지 조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김병연은 여러 지방에서 냉대와 수모를 당했으며 풍자와 해학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전라남도 일대에서는 멸시를 당하거나 푸대접을 받은 일이 없었다. 전라남도에는 무등산, 강진의 금곡사, 장흥의 보림사 그리고 화순의 물염정勿染亭 등 여러 곳에 김병연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전라남도를 빼고는 대한민국에 이처럼 많은 시비를 세운 곳이 어디에 또 있는가? 그리고 그는 1867년 전남 화순 동복에서 한많은 일생을 마감했다.

반대로 그의 무덤이 있는 강원도 영월을 소재로 하는 한시는 단 한 편

29) 『광주타임스』(남도일보로 개명), 2005.1.24.

도 없다. 그런데도 영월에는 41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난고문학관’을 세웠는데 전라남도에는 문학관은커녕 기념관 하나도 없다는 실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곳 전라남도에서도 김병연의 족적과 그 문학을 세상에 알리는 유형적인 사업을 진흥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 논문에서 주장한 지금까지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김병연은 전라남도 화순 동복을 자주(4~5회) 드나들었다.
- 2) 김병연의 작품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냉대를 당했다는 한시漢詩는 없다.
- 3) <난고평생시>는 전라남도 화순 동복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 4)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지었다고 확인되는 한시는 모두 10편으로 다른 지방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다.
- 5) 김병연이 임종한 곳은 전라남도 화순 동복이며 초분지가 있다.
- 6) 전라남도에는 무등산, 보림사, 금곡사, 물염정 등 4곳에 김병연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 7) 이상과 같은 전라남도와 김병연 간의 강한 유대와 증거를 바탕으로 환경설계를 용역하여 이곳 전라남도 화순 동복에 가칭 ‘김병연기념관金炳淵紀念館’을 세울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부록 1> 지명이 확인된 시

순번	제목	제1행 또는 관련 시귀	이응수의 註	필자의 확인
1	金剛山	羸羸金剛山	金剛山	江原道
2	金剛山	萬二千峰歷歷遊	金剛山	"
3	金剛山	長夏居然近素秋	金剛山	"
4	金剛山	江湖浪跡又逢秋	金剛山	"
5	入金剛	緣青碧路入雲中	金剛山	"
6	金剛山景	樂捨金剛山	金剛山	"
7	入金剛	書爲白髮劔斜陽	金剛山	"
8	答僧金剛山詩	百尺丹岩桂樹下	金剛山	"
9	淮陽過次	山中處子大如孃	江原道	"
10	與詩客詰拒	石上難生草	金剛山	"
11	金剛山詩	泰山在後南北路		"
12	金剛山 2	有溪無石溪還俗		"
13	鶴城訪美人不見	瓊雨蕭蕭入雪樓		咸鏡北道
14	吉州明川	吉州吉州不吉州	明川郡	"
15	安邊飄然亭 1	一城踏罷有高樓		咸鏡北道 安邊
16	安邊飄然亭 2	飄然亭子出長堤		" "
17	上樓(倅 趙雲卿)	也知窮達不相謀	咸鏡北道安邊	" "
18	安邊老姑峯過次吟	葉落瘦容雪滿頭	咸鏡北道安邊	" "
19	安邊登飄然亭	林亭秋已晚		" "
20	登咸興九天閣	人登樓閣臨九天		咸鏡南道
21	辱尹哥村	大丑小丑揮長尾	端川	"
22	咸關嶺	四月咸關嶺	洪原北青경계	"
23	鳳凰과 새	鳳飛青山鳥隱林	端川	"
24	貴樂堂		北青	"
25	長洲行	英雄過去風雲盡		" (권영환)
26	妙香山詩	平生所欲者何求		平安北道寧邊
27	登百祥樓	清川江上百祥樓	安州	平安北道
28	妓生과의 合作	平壤妓生何所能		"
29	馬島	故人吟望雪連天		" (정대구)
30	大同江上	大同江上仙舟泛		平安南道 平壤
31	大同江練光亭	截然平屹立高門		" "
32	浮碧樓吟	夕陽投筆下楊州		" "
33	平壤	千里平壤十里於		平安南道

순번	제목	제1행 또는 관련 시귀	이응수의 註	필자의 확인
34	開城人逐客詩	邑號開城何閉門	開城	京畿道
35	開城	故國江山立馬秋		"
36	聽曉鐘	霖風長安時孟秋		"
37	過長湍	對酒欲歌無故人		"
38	眼鏡	龍田居士不貧寒	開城	"
39	開城觀德亭吟	放糞南山第一峯		"
40	自京城至春川道中	萬山叢碧路縈回		京畿道-江原道
41	問僧	龍在鷄龍上上岩		忠清南道 公州
42	扶餘妓生과 共作詩	白馬江頭黃犢鳴		忠清南道
43	老總角求乞表	童則卍而長則冠	燕山	"
44	求鷹判題	得於青山하야	懷德	忠清南道 大德
45	雪景	雪日常多晴日或	咸陽	慶尙南道
46	元堂里	晋州元堂里	晋州	"
47	羸石樓	燕趙悲歌士相逢	"	慶尙南道 (대동시선)
48	嶺南述懷	超超獨倚望鄉臺	嶺南	慶尙道
49	登廣寒樓	南國風光盡此樓		全羅北道 南原
50	沃溝金進士	與我二分錢		全羅北道
51	過寶林寺	窮達在天豈易求		全羅南道 長興
52	泛舟醉吟	江非赤壁泛舟客		全羅南道
53	贈某女	客枕條蕭夢不仁	全羅道	全羅道
54	九月山峰	去年九月過九月		黃海道신천,은율간
55	新溪吟	一任東風燕子斜		" (권영한)
56	松餅詩	手裏廻廻成鳥卵	漢拏山	濟州道
57	元生員	日出猿生原	北道	不明
58	嘲地師	可笑龍山林處士		"
59	登文星岩	削立岩千疊		"
60	秋夜偶吟	白雲來宿碧山亭		"
61	過安岳見忤	安岳城中欲暮天	關西	"
62	雪	訪隱人應隨剝掉		"
63	過廣灘	幾年短杖謾徘徊		"
64	下汀洲	那堪落月下汀洲		"
65	三嘉亭	山嘉水嘉亭亦嘉		"
66	開殘嶺	歸來平地望		"
67	槐村答柳雅士	人說是非吾掩口		"
68	淸城訪答尹友	野雨蕭蕭立古津		"

<부록 2> 지명이 불명한 시

순번	제 목	제1행 또는 관련 시귀	비 고
1	二十樹下	二十樹下三十客	
2	姜座首逐客詩	主窺檐下低冠角	
3	風俗薄	三被主人手却揮	
4	辱說某書堂	書堂乃早知	
5	訓戒訓長	罪當笞死姑舍己	
6	弄詩	六月炎天鳥坐睡	
7	僧風惡	此寺僧風惡	
8	嘲山老	太飯主人非	
9	兩班論	觀其兩班厭眞班	

<부록 3> 전남지역을 나타낸 시

순번	제 목	제1행 또는 관련 시귀	지역	출 처	비 고
1	過寶林寺	窮達在天豈易求	장흥	이응수 『金笠詩集』	
2	泛舟醉吟	江非赤壁泛舟客	화순	"	
3	구례에서등잔불(燈)	用以焚香欲返魂	구례	이명우 『김삿갓 金笠詩集』	
4	爭鷄岩	雙岩竝起疑紛爭	강진	권영한 『김삿갓시』	
5	無等山	無等山高松下在	광주	문재선 『김삿갓 초분지에 관한 고찰』	
6	藥徑深紅蘚	藥徑深紅蘚	동복	"	
7	郡樓乘曉上	郡樓乘曉上	"	"	
8	半齋書架	半齋書架數卷冊	"	"	
9	玉果太還亭韻	불명	옥과	정대구 『김삿갓연구』	
10	贈靈光倅金明會	"	영광	"	



## 참고 문헌

### 1. 시집

- 권영한, 『김삿갓 시』 전원문화사, 2001.  
이명우, 『김삿갓金笠시집』, 집문당, 2000.  
이용수, 『金笠詩集』, 학예사, 1939.  
이용수, 『金笠詩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41.  
이용수, 『김삿갓풍자시전집』, 실천문화사, 2000.  
이용수(리응수), 『풍자시인 김삿갓』, 국립출판사(평양), 1956.  
편자·연대 미상, 『大東詩選』

### 2. 논문

- 문제선, 「김삿갓(金笠) 초분지(初墳地)에 대한 고찰(考察)」, 전라남도 문화원, 1999.  
박대현, 「난고 문학관 金炳淵 친필 관련 자료의 진위에 관하여」, 『고서연구』 21호, 고서연구회, 2003.  
이건호, 「金炳淵詩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이창식, 「김삿갓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세명대, 2001.  
정대구, 「김삿갓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89.  
최환선, 「서술시 운동으로 본 호남한문학 전개양상」, 카톨릭센터 강의 자료(광주), 2005.

### 3. 저서

- 김삿갓 유적보존회, 『난고김삿갓의 문학과 생애』, 2002.  
남성숙, 『湖南思想 호남문학』, 도서출판 민, 1995.  
양주군 문화원, 『임격정, 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났는가?』, 2000.  
정공채, 『오늘은 어찌하라』, 학원사, 1985.  
최협, 『호남사회의 이해』, 풀빛, 1996.

黃五, 『綠此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투고일 : 2005.6.30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K C I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Cholla South Province and The Literature of Kim, Byeong-Yeon

Yang, Dong-sik

The important issues discussed on this thesis are as follows

1. Kim, Byeong-Yeon visited Dongbok, Hwasoon, Cholla South Province four or five times in his life.
2. There are no hints in his poems that he was maltreated in Cholla South Province.
3. It is quite probable that *Nangopyeongsaengshi* may have written in Dongbok, Hwasoon, Cholla South Province.
4. There are ten poems set in Cholla South Province. That excels in number different poems set in other regions.
5. He passed away in Dongbok, Hwasoon, Cholla South Province where the body was originally buried.
6. In Cholla South Province, there are four monuments inscribed with his poems in Mudeung mountain, Borim temple, Keungok temple and Mulyeom pavillion respectively.
7. On the basis of the strong relation between Kim, Byeong-Yeon and Cholla South Province, I suggest that a memorial hall for Kim, Byeong-Yeon (provisional name) should be built in Dongbok, Hwasoon, Cholla South Province and the construction must be environment-friendly.

Key words : Kim Byeong-Yeon, Dongbok, Hwasoon, Cholla South  
Province, Nangopyeongsaengshi

K C I